

# 전북교육발전 위해 모두가 한마음

### 도·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돌봄센터 확대·인구교육 활성화 등 합의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22일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는 최용범 부지사와 관련부서 과장, 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열렸다.

최용범 부지사는 인사발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청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휘 행정국장은 "지역교육을 위해 전북도청에서 항상 깊은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할 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북도청은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공유 ▶급식비 중 운영비 분리 등 총 4건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시군 돌봄센터 확대 ▶학교급식 Non-GMO(非 유전자 변형 식품)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 ▶도청이 지원하는 교육예산 편성 협의 등을 제안했다.

사전 실무협의회와 이날 열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에서 제안한 급식비 중 운영비 분리의 문제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균형적인 공동부담을 위해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이 제안한 안전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0년 각 시·군에 학교차원의 방과후 돌봄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

한 시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16개소에 신규설치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육예산은 공립학교 설치와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도내산 원재료 가공품 공급업체와 공급 가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매년 2회 진행되며, 각 기관에서 제출한 교육현안에 대한 안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 기관이 합의된 내용은 차기년도 예산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반영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기간 간 협력사업으로 그 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부모와 함께

### 전북교육청, 권역별 학부모 협의회 추진... 오늘 장수서 시작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참여 확대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2019 하반기 권역별 학부모 협의회'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각 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부모 협의회는 오늘 장수군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우수사례 및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화 시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대상 학

부모회 컨설팅 △학부모회 활동 추진 사항 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우수사례 발굴 △학부모회 예산집행 및 중점 컨설팅 등이다.

특히 2020년 학부모 동아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 학교자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학부모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모둠별 토의도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 학부모회 임원과 학부모교육 업무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오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토크콘서트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분청 2층 강당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06명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학교X센터) 질문공 풀리기' 성인지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학교 내 학생 및 교원의 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관점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 인식의 변화와 성인지에 대한 점검 등 실용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커뮤니티 '조마네' 대표 이숙경 영화감독이 토크콘서트 사회를 맡고, 패블로는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와 북 칼럼니스트 박사가 참석한 다. 현직교사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서 직접 마주하는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나누고,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지금 여기, 내가 마주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어승리터 이주영 공연가와 함께 하는 음악(퍼포먼스)도 들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감대 높은 질문을 통해 젠더감수성을 함양하고 성비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성교육담당 교원들의 성인지 및 성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건강한 성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뛰어난 창의성 전국에 입증

### 전북대 기계공학과, 전국 지능로봇 경진대회 잇단 수상



CATIA 설계, 제어 등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5자유도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 자율 주행 및 원격 조종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해 정해진 시간 안에 5가지 코스를 통과해 2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에게는 한화 국방로봇상과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전달됐으며, 한화 디펜스 입사 지원 시 서류전

면제의 특전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이 학생들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국제로봇 콘테스트(RC 2019)'에도 참가해 씨름로봇 부문에서 3위를 수상했다.

김형주 학생(기계공학과 3년)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전북대와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좋은 결과물을 위해 한미음 한뜻으로 땀 흘리고 고생해준 팀원들 모두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18년 기계공학과 학과 내 전공 심화를 위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MECHA'팀은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여러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특성화고의 롤 모델 '전주공고' 입학설명회 호응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윤홍진)는 최근 기숙사 시청각실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공고 건축과, 토목과,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전자과의 실습장을 두루 돌면서 6개 학과의 학과 실습내용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공업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무원(전라북도교육청, 전북도청, 서울시청, 행정안전부)과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국토지주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앙소방학교) 등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특성화고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명장육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선도반 운영, 취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전주공업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264명(6개과 2학년씩 총 12학급에 22명씩 선발)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두 가지로 지원자를 중학교 내신성적(석차 백분율)순으로 뽑아 희망학과를 우선 배정하는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학부모의 직업과 동일한 학과에 입학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전형(가업승계)방법이 있어, 특별전형 방법으로는 6개 학과에서 총 30명을 선발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건축학과, 건축 공모전서 다수 입상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은 건축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대 심세보 교수는 "2019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에서 우수상을, 그리고 김동원 교수는 "2019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건축학과 5학년 연기영 학생은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서 학생 부문 전체 대상을, 같은 공모전에서 정동욱, 임예지, 공준혁 학생팀은 금상, 박그린, 경덕현, 서은비 학생팀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림동 42-30 근린생활시설'로 우수상을 받은 심세보 교수는 인천의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송림동

상업거리의 특성과 그 매력을 반영해 송림동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했다. 심 교수의 건축물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소박한 매력을 지닌 건축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건축물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김동원 교수는 '분당메모리얼파크 헤리티지 불안담'으로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받았다. 분당메모리얼파크는 삭막하고 답답한 불안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원처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방적인 불안담을 건축했다.

학생들도 건축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연기영 학생은 Deck,



연기영 학생의 Deck Dock Dwelling.

Deck, Dwelling을 설계해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학생 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Deck, Dock, Dwelling은 군산항 어민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될 공간과 일반 상업 공간을 물길로 끌어들이며 패치워크로 디자인하고 인근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넓혀줄 보행데크를 제공했다.

또, 정동욱 학생팀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도시에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압축도시'를 제안하고, 박그린 학생팀은 상가, 교통, 주차, 창고, 공원을 더한 버스터미널 복합단지, 'Termin:al'을 제안하여 각각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임용민 교수(건축학과장)는 "교과과정에서 지역 도시를 직접 방문해 그 도시의 문화와 생활 환경에 맞게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건축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결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학과 커리큘럼, 학생들의 창의력이 모두 어우러져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축! 전주매일 창간 10주년 기념 10회 고창군의의회